

급변 노동환경 대응 · 정책 효율성 높인다

전주시 노동정책총괄자문관으로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위촉... 정책 추진방향 · 전략 등 진두지휘

전주시가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시는 지난 12일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전주시 노동정책총괄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파를 졸업하고 영국 워릭대에서 노사관계 석사·산업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배규식 총괄자문관은 지난 1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노사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배 총괄자문관은 전주시 노동 분야 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 등을 진두지휘하고 노사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노동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비상근직으로 월 4회 근무한다.

시는 총괄자문관 위촉을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전주시는 지난 12일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전주시 노동정책총괄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은 "다년간 펼쳐온 노동·노사분야 활동 등 토대로 전주시민의 특별한 노동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간전문가의 시장 참여로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총괄자문관, 금융총괄자문관, 고용총괄자문관, 농정총괄자문관, 동물

복지총괄자문관, 보건의료자문관, 지역재생총괄계획가 등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추가 공급

전주시가 높은 주거비와 취업률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린다.

시는 올해 대학교 인근 등 청년들의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 24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정부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리모델링한 뒤 무주택 청년가구에 시중의 50% 이하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사용승인 이후 15년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접수는 매입 목표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전주시 주거복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6층)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주택을 바탕으로 입지 여건과 노후 정도 등 주택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키로 했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대학교 인근과 전북대학교 인근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청년매입임대주택을 공급 중이다. 전주대학교 인근의 경우 총 21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전북대학교 인근에는 오는 6월까지 2개 다가구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해 총 24호를 하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달팽이와 함께하는 슬로길' 선정 위한 선호도조사

전주시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유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길을 발굴해 시민·관광객들과 공유키로 했다.

시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달팽이와 함께하는 슬로길' 선정 위한 선호도조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2시간 내외로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길을 선정해 슬로라이프 실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단은 13개의 주요 길 중에서 예비 슬로길 4곳을 추천했다.

예비 슬로길 4곳은 ▲한옥마을 둘레길(오목대→자만벽화마을→치명자산성지→양사재) ▲도란도란 시나브로길(삼경사→동문자→여경대→삼경사) ▲건지산길(덕진공원부설공영주차장→장군봉→오송제→조경단) ▲완산철봉길(곤지산초록바위→팔각정(장군

봉)→완산벽커→서천개교비) 등이다. 선호도 조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 35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선호도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전주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팽이와 함께하는 슬로길'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월 5년마다 이뤄지는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에서 3번째 인증을 받아 오는 2025년까지 슬로시티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제3기 슬로시티는 이번 슬로길 선정을 비롯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가치를 부여하고 슬로라이프 운동 확산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을버스 '바로운' 요금 부과

전주시, 시내버스와 환승 시스템 구축... 오늘부터 500원

전주 마을버스 '바로운'이 무료운행을 마치고 15일부터 500원의 요금을 받는다.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 750원만 내면 시내버스로 환승할 수 있다.

전주시는 마을버스 '바로운'과 시내버스와의 환승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15일부터 마을버스 탑승 시 연령에 관계없이 5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외곽지역 등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된 마을버스 '바로운'은 시내버스와의 환승시스템 문제로 그간 무료로 운행돼왔다.

'바로운'은 주요 생활거점까지 500원으로 이동 가능하며,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시내버스로 최대 2회까지 환승할 수 있다.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탈 경우 시내버스 요금(1250원)과의

차액인 750원(성인 기준)만 내면 된다.

환승시간은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환승 시에는 하차태그 후 40분 이내이며,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환승 시에는 하차태그 후 90분까지다.

운행지역은 ▲조촌·여의 ▲혁신·만성 ▲금암·인후 ▲평화 ▲동서학 ▲우아 등 6개 방면에 18개 노선으로, 총 14대가 운행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영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약 7만3,000여 명, 평일 약 1,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요 목적지까지 환승을 이용해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야호학교 인후공간' 개소

전주시, 청소년 복합 활동공간... 개관식 유튜브 생중계 공연장 · 영화관 · 전시실 · 공부방 · 작업실 등 갖춰

전주 청소년들의 복합 활동공간이 될 야호학교 인후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또 35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선호도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전주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팽이와 함께하는 슬로길'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월 5년마다 이뤄지는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에서 3번째 인증을 받아 오는 2025년까지 슬로시티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제3기 슬로시티는 이번 슬로길 선정을 비롯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가치를 부여하고 슬로라이프 운동 확산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제3기 슬로시티는 이번 슬로길 선정을 비롯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가치를 부여하고 슬로라이프 운동 확산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나, 별세) ▲공부방(수리길) ▲요리공간(해복요리실) ▲북카페(웨이브카페) ▲휴게실(느루 쉼터, 휴~후 쉼터) 등이 두루 갖춰졌다.

야호학교 인후공간의 내부 인테리어의 경우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치프로젝트 활동을 용이하도록 시작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청소년과 시민자문단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꾸며졌다.

인테리어 콘셉트 구성에 참여한 김현우 양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전주 주민의 청소년 공간인 야호학교를 더 자신하고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직접 꾸미고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새로운 문을 연 야호학교 인후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성취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조금씩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